



공군1전비,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 설치훈련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달 31일 오후 '심야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 설치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은 적 공격 등으로 활주로 조명시설이 고장 났을 때,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긴급 설치하는 장비이다.

최단 시간 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신속한 설치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이날 훈련은 갑작스럽게 활주로 조명시설 전력공급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하며 시작됐다.

상황을 접수한 소방구조중대 요원들은 조명등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해 기준시간인 30분 안으로 모든 조명등을 설치하며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무리했다.

백승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방구조중대장은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작전에 이상이 없도록 신속·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남구 진월동지사협, 돌봄이웃 주거환경 정비

광주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싱크대 설치 및 집안 청소 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진월동 지사협 지역특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이뤄졌다.

싱크대가 없어서 가스레인지와 마루바닥에 놓고 요리를 하고 밖에서 쪄고려 앉아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싱크대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으며 손길이 닿지 않아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청소를 진행했다.

오승수 위원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대상자를 위해 협의체 위원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적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사협은 주변에 관심이 필요한 돌봄이웃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신보-신용회복위, 소상공인 지원 협약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신보)은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광주시 소상공인 중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원하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지난달 31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신복위 광주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신보 김귀남 이사장과 신복위 신우선 본부장 등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신용회복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양 기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신보는 신용회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복위를 통한 대출발급금 신청 및 채무조정 등을 통한 방법을 안내해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돕기로 했다. 또 양측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 서구, 화정1동에 천원국시 7호점 개소

광주 서구가 지난 1일 화정1동(화운로175번길 5-7)에 '천원국시 7호점'을 개소했다. (사진)

천원국시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말로 만든 국수를 단돈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서구의 대표 사업이다.

화정1동은 60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마을로 서구는 이를 고려해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7세 미만 아동에게 1000원에 따뜻한 국수를 판매한다.

또 '함께 있다, 안전마을'이라는 화정1동의 BI(Brand Identity)에 맞춰 건설 현장 종사자에게도 1000원에 국수를 판매하며 그 외의 주민들은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하루 100그릇을 판매하며, 주민 누구나 냉장고를 채우고 반찬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나눔 냉장고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함께 운영한다. **정상이 기자**



광산구의회, 감사·심의 대비 전문가 특강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대비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제293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광산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로는 김인철, 장인식 지방의회연구소 교수가 초빙돼 각각 '예산안 심의 및 검토 과정',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예산관계법과 예산편성기준 등 예산 심의에 필요한 실무 기반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서도 실전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쟁점들을 토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기독병원, 환경정화캠페인 실시

광주기독병원이 개원 119주년을 기념해 환경정화캠페인을 지난 2일에 진행했다. (사진)

3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직원 200여명이 참여해 푸른길공원 주변, 양림동산 일원, 백서로-양림로 주변, 양림오거리 및 팽귄마을 주변, 양림동 골목길 등 5개역으로 나눠 2시간 가량 쓰레기를 치웠다.

김병석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환경정화캠페인이지만 119주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낮은 자세로 임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정화캠페인에 참여한 직원은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기분이 너무 좋다"며 "운동도 하고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병원, 의료관련감염 유공 질병관리청장 표창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진·사진)이 '2024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유공 포상'에서 의료관련감염 감시 및 대응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감염 발생 감시 및 신고 △감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 활동 △의료관련 감염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광주광역시 권역중심병원으로서 지역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 지역사회 의료관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전남대병원 박경화 감염관리실장(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감염 예방·관리 대책을 세워 모든 직원이 의료관련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의료관련 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환자·보호자·방문객·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전파되는 감염을 말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자 모두 손위생, 호흡기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감염관리팀은 의료관련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관련



전남도, 광역 최초 전지훈련 관계자 초청 설명회·팸투어

전국 감독·코치 100여명 참석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전국 광역 최초로 전지훈련 관계자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세계로 웅비하는 대오약! 전남 행복시대'라는 슬로건에 맞춘 이번 설명회에는 명칭한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운영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손점식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전국 운동팀 감독·코치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날 영암 호텔현대대비라한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온화한 기후, 풍부한 관광자원, 맛깔스러운 남도음식으로 대표되는 전남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여건, 체육시설, 전지훈련 지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소개로 이뤄졌다.

또 전지훈련지로 전남을 10년 연속 방문한 가평중학교 사이클팀 하재민

감독과 8년째 찾아준 충남도 육상팀이 우택 감독 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둘째날에는 동부권(순천), 중부권(화순), 서부권(해남) 3개 지역으로 나눠 팸투어를 진행했다.

동부권은 팔마종합운동장, 팔마실내체육관, 야구장 등을, 중부권은 이용대체육관, 공설운동장, 하니움스포츠센터 등을 방문했다. 서부권은 우슬공설운동장, 우슬체육관 등을 견학했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는 전지훈련 최적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남도에서 전지훈련팀의 실력과 능력 향상을 통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4년 기준 308개소의 전지훈련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추성훈, 학폭 피해자였다... "선생님에게 구타 당해"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사진)이 악플로 받은 상처에 대해 언급한다.

3일 오후 9시10분 방송되는 MBC TV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에서 추성훈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강연을 마친 후 그는 "격투기보다 강연이 더 힘들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강한 이미지로 익숙한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안겼다.

이번 강연에서 추성훈은 어린 시절 제일교포로서 겪은 차별에 대해 처음으로 솔직히 털어놓는다.

그는 중학교 시절 친구와 다툼 후 선생님에게 구타를 당하며 "일본인 때리지마"라는 말을 들었던 아픈 기억을 전하며, 그동안 쉽게 말하지 못했던 과거



의 상처들을 고백한다.

추성훈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자신과 가족을 향한 악플들을 언급하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는 고민에 빠졌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오은영, 설민석, 김태훈 등 베테랑 강연자들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추성훈은 딸 추사랑이 악플로 상처를 받을까봐 염려했다.

그는 "딸이 겪을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털어놓아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다.